

移民文學論(I)

——南石의 作品을 中心으로 한 40年代 國文學
속에 나타난 移民文學의 性格 考察——

吳 養 鎬

<內 容>

- | | |
|--------------------------|----------------------|
| I. 序 論 | 1. 現實과 外觀 |
| II. 問題의 提 起 | (1) 前代 農民小說의 持續性 |
| 1. 40年代 前期文學의 一般
的 傾向 | (2) 曙海文學과의 類似性 |
| 2. 亡命文學의 文學史的 位置 | (3) 農土의 開墾意志와 그 勸教意志 |
| III. 本 論 | IV. 結 論 |

I. 序 論

1940~1945年 사이는 우리 文學史에서 暗黒期로 命名된다. 이 시기의 特性은 再論할 餘지조차 없겠지만 日本의 朝鮮 植民地 統治가 가장 가혹했던 時期이다. 이 가공할 治世가 國文學에 끼친 影響은 막중하다. 아니, 國文學은 여기서 墜락을 고하게 되었다. 그러던 여기서 소란한대로 獨尊학이랄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자.

國文學은 文學이다. 그리고 적어도 國文學일 때에는 우리의 文字로 쓰여져야 하고, 민족적 感情이나 情熱, 思想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작품은 아무리 文學的 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國文學으로 稱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만약 民族을 팔고, 국가를 배반하는 文學이 있다면 그것은 賣國文學이요, 叛逆文學이다. 반대로 民族精神을 지키면서 압력에 抗拒하는 文學이 있다면, 이것은 抵抗文學이 된다.

1940年에서 1945年 사이의 國文學史는 上論한 바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 시기다. 곧 우리의 文字使用이 금지되면서 거의 모든 作品이 日本文字로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 사상과 감정도 異國的 정조를 띠거나¹⁾, 새로

1) 예를 들면 <國境의 밤>의 金東煥은 가장 한국적인 田園의 眞純한 生活을 찬미 (<岸邊의 露滴의 밤 序文>하다가 <海築花>(1940)에 와서는 그 土壤에 엄청난 變化를 일으킨다.

운 시대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²⁾ 이런 결과 오늘날 이 시기를 다루는文學史는 그 시기를 空白로 남기고 다음 시기로 넘어가거나 또는 「역사는 서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反民族的, 反國民的 文學이라 하더라도 문학적 자신을 서술하는文學史에서는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日本語로 된 作品도文學史에서 다루는 例外를」 대한다.³⁾

그러나 많은 작가와 시인이 벌써 日本式으로 創氏改名을 했고, 日本文字로 글을 썼다. 표현 문자가 틀리고 작자명이 日本式, 거기다 내용마저 大東亞 공영권을 외치고 나오는 시국물이다. 이런 점에서 日文으로 쓰여지고, 創氏改名에 발맞춰 우리 민족의 사상과 거리가 먼 作品은 이 시기를 다루는文學史에서 응당 제외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우리의 古代文學史가 漢文으로 된 것을 제외하지 못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의 경우는 당시 우리에게 文字가 없었고 각 作品에 담겨진 내용이 中國의인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의 순수한 한 단면을 다루고 있고⁴⁾, 그 作者는 創氏改名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일 없는 한국인이다.

<第二次 世界大戰의 熱風과 朝鮮現代文學史上的 暗黒期>⁵⁾란 구절로 기록되는 40年代의文學史에서는 日文으로 된 作品은 모두 除하고 한글로 발표된 作品만을 다루고 있어 극히 짧은 스페이스로 끝나고 있고(총 413p의 저서에서 이 項은 겨우 26p로 끝남)<1940년에서 45년까지의 非樣式的 國文學>⁶⁾으로 기술하고 있는 문학사에서는 1940년에서 1945년 8.15까지의 껍을 배우기 위해 정리되어야 할 시공장을 정리하는 실정으로 한글로 쓰여졌던 日文으로 쓰여졌던 관계없이文學史 서술의 대상으로 잡은 결과 그 結論은 우리文學史의 상흔만 보여 주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北原의 亡命地帶在滿鮮人の 生活을 다룬 作品을 대상으로 잡을 때 문체는 달라진다. 여기서는 비옥한 토질과 광활한 大地를 배경으로 새로운 民族史의 현장을 문체 삼는다. 이것은 本國文學이 植民地 朝鮮의 진실한 형상을 외면하고 점진적 개혁론(레이몽 아롱)을 들고 나온 태도와는 판이하다. 난관을 극복하고, 역사를 지배하면서 전 인류에 대한 윤리적 보편주의에 기초한 당대 한민족이 직면한 역사조건을 인식하고, 人間의 도덕적 가치문제를 의식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존이란 민족의지를 표현한다. 이런 점은 분명 40년대 민족문학의

2) 人文評論 創刊號부터 실렸던 각종 卷頭言은 그 代表的인 예다.

3) 張德順：暗黒期文學史(世代, 1963. 9), p. 180.

4) 조윤제：韓國文學史(樸求堂, 1968), p. 4.

5) 백철：朝鮮 新文學思潮史(白陽堂, 1948), p. 373.

6) 張德順：「日帝暗黒期의 文學史」의 副題.

엿센스라 할 수 있다.

여기서 移民文學(exile의 文學, 亡命文學)이란 용어는 上記한 것처럼 내용이나 소재, 表現文字의 相異에서 오는 제재론적 命名이 아니라, 地政的 差異에서 본 地方文學의 입장이다. 따라서 하나의 地方文學으로서 한 시대의 文學의 特性, 國文學의 本質을 밝혀 보자는 의도다. 이것은 전술했듯이 이 시기에 와서 우리의 文學은 새로운 文字, 새로운 민족의 사상 감정의 표현, 창씨개명된 작가에 의해 <한국>과는 떠나버렸으나, 이 망명지 지방문학은 그 表現文字가 아직 국자(한글)이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作品의 主題가 前代文學과(본국의) 持續的인 面을 보여 주고 있고, 作品에 나타나는 葛藤의 양태가 民族의 공통적인 感情・관심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上述한 성격의 본질을 南石 安壽吉과 朴啓周의 作品을 통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南石의 作品은 1943年 만주에서 출판한 창작집 <北原>이 중심이 되었고 朴啓周는 <處女地>(41), <死刑囚>(42), <肉票>(43) <乳房>(43) 등 在滿 우리 동포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되겠다. 이 시기 滿洲⁷⁾는 日帝가 大陸經營의 일환으로 1932年 滿洲帝國을 만들고 中日戰爭의 兵站地로 삼을 즈음 新京과 龍井을 터전으로 한 교포지식인 간에는 동인지 <北鄉>을 중심으로 한 문단사회가 형성되고 太平洋戰爭이 발발 국내에 統後奉公이 한창일 때 滿鮮日報를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창작활동을 벌인다.⁸⁾ 在滿作家集(<작품는 大地> 41)이 나오고 閩島와 吉林에서 두개의 合同詩集이 나왔으며(<在滿詩人集> <在滿朝鮮人詩集>), 소설가로서 曺상섭, 朴啓周, 朴榮濟, 姜敬愛, 玄卿駿 등이 있었고, 詩人으로서 毛允淑, 柳致環, 金達鎭, 金朝奎 등 외에, 金鎭壽, 尹永春, 朴貴松, 孫素熙, 李厲洪 등의 文人들이 생활하면서 모국어로 글을 쓰는 국문학의 마지막 보루지였다.

從來의 文學研究는 上記한 범주의 것은 一個地方文學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자료의 量的 寡小나 수집의 난점으로 말미암아 研究對相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北原> 수록본의 中短篇 12篇(449面)과 朴啓周의 4作品을 대상으로 삼을 때 이러한 시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인 기도가 謬謬를 낳아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지난했던 시대의 民族

7) 여기서 滿洲라 함은 閩島를 포함하여 우리 민족이 移住해 살았던 全移民地帶를 의미한다.

8) 金炳翼: 文壇半世紀(東亞日報), 제53회분.

9) 英國 小說의 理解와 分析(探究新書, 64:1973), p. 379. 383.

史의 現場을 취제한 망명문학이 가지는 文學的 가치와 文學史的 位置가 밝혀지면 자연 우리의 文學史가 1940年代의 前半期를 공백으로 남기고, 光復以後로 기술되는 사례는 시정될 것이며, 소위 暗黑期로 지칭되면서 非樣式의 國文學이란 별질된 내용과는 상이한 우리 文學의 本質을 規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作品이 지니고 있는 文學史的 가치나 文學的 평가는 경중을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作品의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稿가 安壽吉과 朴啓濤의 作品을 中心으로 이 양면을 검토하는 측면도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II. 問題의 起提

1. 40年代 前期文學의 一般的 傾向

한 文學作品이 반드시 社會史의 한 단면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며, 또 社會的 徵候로서 창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文學作品은 特定한 한 個人이 본 經驗의 비전으로 個人의 비전, 自我(Identity)의 主張이다. 그러기에 어떠한 作家도 孤立하며 살지 못한다. 그는 독특한 個人이지만 他人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知的 背景 속에서 살고 있는 個人이다. 作家의 任務은 자신이 살고 있는 時代의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을 내리는 것이라기 보다 刺戟적이고 昭明的인 個人的 비전을 통해 해결책을 탐색한다고⁹⁾ 보면, 異民族의 統治時代를 산 우리의 作家가 現實의 문제——民族解放이란 문제를 바로 비판하지 못하고 보호색을 쓰거나, 새로운 主題로 눈을 돌리는 것은 일단 이해된다.

韻文이 느낌이라면, 散文은 제시고 증명이라 할 수 있다. 歷史의 眞實이 가리워진 帝政末期에 있어서 우리에게 提示나 證明은 허여되지 않았다. 곧 提示나 證明이란 歷史意識을 갖는다는 것은 日帝 植民地 統治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信念에 철저하는 精神, 主體性的 정신, 自己에 대한 再認識을 하고, 自己民族의 傳統을 회복해서 참된 휴머니티를 發見하고 그 민족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다룬다는 民族文學의 見地에서 볼 때 1940年을 전후한 韓日合邦이 文學의으로도 完成的 단계¹⁰⁾에 있었

10) 1940. 8. 10 : 동아, 조선일보 폐간.
1941. 4 : 人文評論 폐간.
1942. 2 : 文章 폐간.
1942. 10 : 조선어학회 회원검거와 해체.
1943. 9 : 진단학회 해체 등.

던시기에 우리의 散文文學은 이 文學이 지닌 本質的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上記했듯이 이것이 不可能함에 韻文의 우세 현상을 나타내면서 散文은 객관적으로 歷史를 解釋할 信念이 徹底하지 못하며 올바른 倫理를 固持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가장 완벽한 식민지 시대가 오면서 民族은 단한 社會로 빨려들고 精神的 自己革命은 權力志向의이고, 右派的 現實 타협안으로 인해 마비되었다. 內鮮一體가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는 狀況에서 民族意識은 暫留중다가 北原地帶로 흘러들었다. 이것은 西歐에 있어서 托베스피에르의 政治方式이 나포레온과 같은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대두하게 했듯이, 日帝의 羈絆에 놓여 있었던 우리는 歷史의 보편성과 國際社會의 평화체제나 인간존엄의 절대적 가치 조차도 여지없이 마멸되는 독소적 性格과 大和民族만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집착으로 제국주의와 독재주의에 이끌려 가고 있었던 면과는 상반된다. 解放 以前까지 이 땅에 활동한 文人의 수를 보면 대략 200여명으로 나타난다.¹¹⁾ 이 가운데 ①創氏改名을 하고 日文으로 글을 썼거나 친일문학가로 인정된 사람(林鍾國의 親日文學論에 의하면 28명으로 나타난다)②소위 순수문학파로 創氏改名은 공식적으로 내걸지 않은 계열 ③海外로 떠난 文人의 계열(간도 30여명¹²⁾, 歐美地域 約간名: 韓黑鷗, 姜鏞訖, 李彌勅 등) ④農村으로 돌아가거나(農民作家) 저항한 계열로 大別된다.

①의 경우의 대부분은 비평가와 소위 당대 大家級의 작가와 시인이고 ②의 경우는 新人이거나, 주로 詩人그룹이 이에 해당한다. ③의 경우는 本稿가 다루려는 在滿文人그룹에 해당한다. ①의 경우는 自意만이라기 보다 他意도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역시 사회적인 위치나 비중으로 보아 그렇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예를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 일으키고 있는 春園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②의 경우는 아직 文名을 얻지 못했으니 外部의 압력같은 것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백철의 지적대로 이 시기 文學의 志潮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¹³⁾ 순수문학의 立場을 유지함으로써 난국을 비교적 큰 수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承福과 등이 그 예다. ③의 경우는 ①의 경우처럼 처

11) 白鐵: 朝鮮 新文學思潮史등을 중심으로 한 筆者의 조사에 의함(이하 朝鮮 新文學思潮史는 <朝鮮史>로 함).

12) 최남선, 안수길, 박계주, 연상섭, 박영준, 박판양, 신영철, 김달진, 윤영춘, 박기송, 모윤숙, 손소희, 이갑기, 고재기, 윤금숙, 송지영, 이석훈, 이주복, 현경준, 김국진, 장경애, 유치환, 김전수, 이주홍, 崔其正, 李哲浩, 崔武, 李德星, 李鶴城 등.

13) 白鐵: 朝鮮史(現代篇), p. 380.

음부터 社會的 기반, 혈연적 기반, 지연적 연관관계 등 소위 당대의 권력층
 파에도 타협하지 않고, 학벌이나 가정적 배경같은 것도 의식하지 않고, 歐美
 로 망명했거나, 좀 더 살기좋은 곳(만주)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다. 효석이
 (①의 경우)그 帝政末期에 총독부 밑에서 作品검열을 한 제국대학 출신이요,
 玄民은(①의 경우) 장안이 아는 재사인 法學徒로써 文學을 하다가 전향하여
 一身을 무난히 넘긴 타인의 예다. 그러나 ③의 경우, 그 무대가 된 間島는
 庚戌國恥이후 抗日武力鬭爭의 명실상부한 전진기지 역할을 다한 지역이다.
 특히 일제가 괴태 만주국을 세우기 이전까지 이 지역은 한국 독립군의 가장
 튼튼한 근거지가 되었던 바¹⁴⁾, 따라서 이 지역에서 文學活動을 한, 文人들
 은 다같이 민족과 民族史에 대해 투철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식의 토대 위에서 자신들이 할 바를 몸소 행하려던 사람들이다. ④의 경
 우의 작가로는 초기에는 농촌계몽소설을 썼고 후에 저항시를 썼던 沈熙과
 李無影, 金廷漢, 朴南秀, 金永郎, 李漢稷 등으로 代表된다.

2. 亡命文學의 文學史의 位置

個別的인 文學作品의 研究는 가장 바람직한 文學史의 서술을 위한 변별자
 적 성격규명이라고 본다면, 亡命文壇의 변별자적 位置는 무엇인가? 당시
 滿鮮日報는 南石의 <北原>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滿洲에 있어 鮮系詩文運動이 싹트기 十年 그 가운데서 康德九年度에 在
 滿朝鮮人作品集「싹트는 大地」가 發行된 것이 嚆矢로서 昨十年에는 다만 間
 島와 吉林에서 두 時集이 나와슬 뿐 寂然히 作品集의 出版이 없는 中 今番
 에 南石 安壽吉 創作集「北原」이 드디어 發行케 되어 印刷도 거의 甯靜스
 으로 不日間 世上에 나오리라 한다. 「새벽」, 「벼」, 「牧畜記」, 「圓覺村」 등 외
 에 新作「城」, 「새마을」을 收錄한 作品이 合十二篇 四百餘項의 巨篇으로 大
 部分 作品은 滿洲에 있어서의 朝鮮人 生活를 그린 것인데 起筆하기를 建國
 以前으로 遡及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多種多樣的 朝鮮人生活의 時代의인
 배경과 歷史的 運命 등을 남김없이 取材한 것이다. 創作集으로써의 價値도
 價値려니와 在滿朝鮮人開拓의 文獻的 價値로도 적지 않은 바가 잇서 크게
 期待된다. 그리고, 滿洲 文壇에서 個人 作品集으로는 이것이 역시 嚆矢
 이다」.¹⁵⁾

14) 沈玄: 抗日國民會軍(東亞日報: 1974. 3月 연재분)은 이런 물렸던 獨立鬭爭史
 의 하나다.

15) 滿鮮日報: 康德 11年(1943), 4月 12日字.

우리 민족이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C부터이지만 本格的으로 亡命의 性格을 띄우고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1910年代를 넘어서면서부터이다. 그러나, 在滿移民들이 文學活動을 시작한 것은 1930年代에 와서야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곧 1935년부터 同人인 <北鄉會>가 同人誌를 내면서 亡命文壇을 형성키 위해 李周福과 毛允淑, 安壽吉이 作品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최초의 출발인 「썩트는 大地」는 제목부터가 자못 의욕적인 것이었으나, 10여년의 文學활동의 결과는 두 개의 시집과 하나의 작품집을 낼 정도의 극히 영성한 처지에, 個人的 창작집 간행은 이런 寂然한 間島文壇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 주지 못하며, 文學史的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다. 그리고, 이 作品集이 在滿 朝鮮人の 生活을 그리고 있는 리얼리즘적 입장은 在滿 朝鮮人の 開拓精神을 찾아 낼 수 있는 다른 하나의 文獻의 가치를 지닌다고도 보고 있다. 이러한 당시 당지의 評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인구 200萬(1945년)을 헤아리던 만주 移民을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文化的 유산이 <北原> 한 권의 창작집으로 대표된다는 사실로도 그렇다.

다음 또 하나 이 移民文學이 지닌 文學史的인 性格의 하나는 1940年을 넘어서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母國語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文學의 表現 수단이 言語(母國語)이며, 그 言語(母國語)의 상실이 바로 母國文學, 즉 그 民族의 文學自體의 상실이란 처지에서 본다면 이 移民地帶의 文學이 비록 그 作品의 수는 다소 한산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否定的 美名으로도 지울 수 없는 文學史的 價値를 지닌다. 南石의 <北原>(43) 외에도 전술한 朴啓周의 <處女地>(41), <死刑囚>(42), <肉票>(43), <乳房>(43) 등이 모두 40年代 以後의 作品으로 국가를 잃은 민족의 수난(肉票)과 그 수난을 이겨려는 개척정신과(處女地), 異民族의 非人間地帶를 비판하는 한국적 인종주의(死刑囚)의 作品들이다. 또 2차대전에 학도병으로 연안에 출전했던 정태호군의 얘기를 쓴 <乳房>(43) 등이 모두 在滿 朝鮮人の 問題를 다룬 것으로, 그가 多量의 新聞小說을 쓰기전의 리얼리즘 계열의 作品들로 文學史에서 새로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본국 문학이 國語(日本)文學, 皇道文學 속에 그네들이 제정한 國語文藝 總督賞이니 芥川賞委員會가 결정하는 朝鮮藝術賞으로 날로 日本創作과 文章報國이 요란하게 제창되고 있다는 것과는 판이한 현상이다.

우선 이런 作品의 예단으로도 1940年에서 45年까지의 非樣式的 國文學을 暗黒期로 보고,

우리 민족이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C부터이지만 本格的으로 亡命의 性格을 띄우고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1910年代를 넘어서면서부터이다. 그러나, 在滿移民들이 文學活動을 시작한 것은 1930年代에 와서야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곧 1935년부터 同人인 <北鄉會>가 同人誌를 내면서 亡命文壇을 형성키 위해 李周福과 毛允淑, 安齋吉이 作品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최초의 출발인 「썩트는 大地」는 제목부터가 자국 의욕적인 것이었으나, 10여년의 文學활동의 결과는 두 개의 시집과 하나의 작품집을 낼 정도의 극히 영성한 처지에, 個人的 창작집 간행은 이런 寂然한 間島文壇에 큰 활기를 줄 뿐 아니라, 文學史的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다. 그리고, 이 作品集이 在滿 朝鮮人の 生活을 그리고 있는 리얼리즘적 입장은 在滿 朝鮮人の 開拓精神을 찾아 낼 수 있는 다른 하나의 文獻의 가치를 지닌다고도 보고 있다. 이러한 당시 당지의 評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 되서는, 인구 200萬(1945년)을 헤아리던 만주 移民을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文化的 유산이 <北原> 한 권의 창작집으로 대표된다는 사실로도 그렇다.

다음 또 하나 이 移民文學이 지닌 文學史的인 性格의 하나는 1940年을 넘어서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母國語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文學의 表現 수단이 言語(母國語)이며, 그 言語(母國語)의 상실이 바로 母國文學, 즉 그 民族의 文學自體의 상실이란 처지에서 본다면 이 移民地帶의 文學이 비록 그 作品의 수는 다소 한산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否定的 美名으로도 저울 수 없는 文學史的 價値를 지닌다. 南石의 <北原>(43) 외에도 趙善翰의 朴啓周의 <處女地>(41), <死刑囚>(42), <肉票>(43), <乳房>(43) 등이 모두 40年代以後의 作品으로 국가를 잃은 민족의 수난(肉票)과 그 수난을 이긴려는 개척정신과(處女地), 異民族의 非人間地帶를 비판하는 한국적 인종주의(死刑囚)의 作品들이다. 또 2차대전에 학도병으로 연안에 출전했던 정태호군의 얘기를 쓴 <乳房>(43) 등이 모두 在滿 朝鮮人の 問題를 다룬 것으로, 그가 多量의 新聞小說을 쓰기 전의 리얼리즘 계열의 作品들로 文學史에서 새로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본국 문학이 國語(日本)文學, 皇道文學 속에 그치게 된 國語文藝 總督賞이니 芥川賞委員會가 결정하는 朝鮮藝術賞으로 날로 日本創作과 文章報國이 요란하게 제창되고 있다는 것과는 판이한 현실이다.

우선 이런 作品의 예단으로도 1940年에서 45年까지의 非樣式的 國文學을 暗黒期로 보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히 제기되었는가를 시사한다. 그 후 陸史의 시키나 간도 출신의 레지스탕스 尹東柱의 詩 世界가 모두 그러하다. 李瑋馨의 <行色> 18)에 오면 移民을 노래하는 色調는 더욱 짙어진다.

「흰 옷에 바가지 주경주렁 둘러 메고 가는 사람들 너희끼리 품직히 바래는 마음
 끝은 어디걸러, 가도가도 자꾸만 어긋나는 것일까. 박꽃 덩굴이 팔라가는 제력저
 같은 지붕에선 윙윙윙 창끝 같은 고드름 장막도 사라져 겨울 지나면 고향들 허물
 어진 돌각담 틈에는, 담자색 오랑캐꽃 피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날나리에 어깨춤 추
 며, 하얀 달래 살찐 봄비나리로 소꿉질하며, 손주들이 목화처럼 자라던 일이랑. 건
 너 산기슭 흙내 그윽한 죄고마한 영광, 모두 해서 회한한 것이란, 하얗게 단힌 쌍바
 라지 뿐. 해마다 활아버지는 방바닥 하신다고, 열매 기다리던 행자나무 흰 꽃 필 무
 림이면, 으헤이 소천여 천렵하던 일이여, 이윽고 활아버지도 들어가신, 고향들엔 선
 조의 묘만 늘어가던 유난히도 유자랑 향기롭던 쉼날 가을 날, 손주 소년은 하얀
 쌍바라지도 여회고, 몇몇개의 바가지에 섞여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민열
 차 속 때물은 불부처 되어서, 자꾸만 자꾸만 흔들리어 가던 일이며. (<行色>一節)

바가지 달고 移民을 떠나던 사람은 <소반귀퉁이 옆에 앉은 農軍에게서는
 송아지 냄새가 나고/힘없이 웃으면서 차를 타면 北으로 간다고/어린애가
 우는>(吳章煥: 北方의 길) 유랑의 대열이다. 농토와 고향을 두고, 아직도
 송아지 냄새가 나는 行色을 하고, 희망없는 北行列車를 탄 고달픈 농부와,
 사라져 가는 故鄉을 한갓 추억 속으로 돌리고 移民列車에 실려가는 손주소
 년의 모습은 40年代 移民文學의 絶唱을 이룬다. 이런 서정의 격조높은 리듬
 은 조국상실이 빚어낸 民衆의 恨과 非情의 니힐리즘과 접맥하고 있는 운명
 론의 열레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외관(appearance)일 따름이다.

散文中에 오면 1920年代의 최학송은 궁핍과 기아와 대결하고 植民地 現實의
 民族的 궁핍화 및 饑餓와 싸웠던 경험을 그의 文學的 世界의 意識으로 살피
 고 있고, 현진건의 <故鄉>이 또한 이런 主題로 그 리얼리즘적 서술의 묘를
 얻는다. 1930年代로 넘어오면, 金東仁의 <붉은 산>('32), 李石薰의 <移
 住民 列車>('34), <故鄉 찾는 사람들>('50), 李泰俊의 <農軍>('43) 등
 이 모두 北原地帶를 오가던 우리 先人의 現場을 예자와 한다. 특히 이태준
 의 <農軍>은 만주로 流離하는 젊은이를 日本 형사가 취조하는 행패가 그
 려져 있다. 그리고, 北으로 가는 찾간 속의 雜然한 風景, 유쾌하지 않는 뉘
 새 속에 그들은 먼 촌락의 團欒한 面影을 그린다. 이런 점은 그의 <寧越舍

18) 朝鮮文學全集⑩(漢城圖書株式會社: 1949), p. 340.

농촌 계몽운동의 역설은 삼일운동 전후, 간도에 망명해 있는 志士도 아니었기에 학생들의 빈축을 산다. 그래서 박찬호는 자리를 후진에게 밀려주고 ○○현에서 목장을 경영하기 위해 직접 농촌으로 뛰어 든다. 이것은 <상록수>의 박동혁이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귀농하는 것이나, 허 승이 학업을 마친 후 좋은 일자리를 두고도 귀농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주인공의 출신 성분(지식계급), 귀농 동기(무지한 농민계몽), 귀농후 농촌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발상 등이 동체를 이룬다. 이런 점은 1944년부터 1945年 解放前 4月까지 滿鮮日報에 연재했던 <北郷譜>에도 나타난다. 이 長篇은 間島住在의 農民生活를 소재로 하여 農民道라는 問題를 다룬 것으로²⁹⁾ 모두 이와 동체의 소설적 발상을 지닌다. 그런데, 이 시대의 作品中에서 農民道나 농촌부흥론을 주제로 한 作品을 帝國의 植民地 政策과 연관지워 설명하려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인 오류다. E·월슨이 <문학에서의 역사해석>에서 차르(Tsar)시대의 러시아 社會主義批評이 만드지 정치적 結論으로 사실을 유도하는 태도를 탈갓지 않게 보는³⁰⁾ 이유도 이상과 같은 작품해석에 대한 사려없는 태도의 시사일 것이다. 따라서 열상섬이 참다운 農民文學은 農業滿洲를 건설하고 완성하는 정신적 원동력의 공헌원이라 했을 때³¹⁾ 그 서문의 全體的 文脈으로 보아 만드지 國策順應의 입장에서만 거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40年代란 어려운 시대에 삶이란 문제가 만드지 集團的 生存意志만으로 설명될 수만 없다는 의미다. 이 정도 것까지도 親日文學 賣國文學으로 처티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독단이고 횡포다. 市民的인 것의 反省으로³²⁾ 나타났건(本國의 농민소설) 「근로를 국시로 하여 농촌을 부흥시키려는」 정신에서이건, 200萬 동포가 사는 만주지방의 우리 농민에게 있어서 노우송(老宋: 牧畜記)의 양돈사업은 新開地 移民의 새로운 삶의 意志입에 틀림없다. 이런 점은 在滿鮮인이 만주인 자주와의 갈등을 다룬 作品群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2) 曙海文學과의 類似性

1920年代의 崔曙海는 자신이 만주에서 겪은 궁핍, 곤욕, 참상을 기록한 作品을 써서 「있는 사실의 記錄」이란 새로운 文學 형식을 이 땅에 성공시켰다. 이것은 作品보다 文學論이 勝했던 階級文學의 이데오르기를 무색하게

29) 필자 安壽吉自身の 술회(片紙).

30) Edmond willson;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Literature(1940) (Modern Literary Criticism, 1972); New York., p. 275

31) 北原 서문, p. 5.

32) 朴○極; 농민문학의 옹호 (1) (1940. 2. 24 東亞日報)

했고, 반화, 살인으로 끝나는 結句부분의 反抗樣式은 음울한 분노에 적절한 분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당시 20年代 散文文學에 서로 유행을 流布시켰다. 20年代의 최학송의 이러한 作品의 특징, 특히 在滿 鮮人의 궁핍과 참상, 그것의 報告 文學의 특징은 '40年代의 이 在滿 鮮人을 다루는 作品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소금 털매로 근근히 호구해 가는 流浪農民의 서글픈 얘기를 쓴 <새벽>의 <피>가 보여주고 있는 충격적인 結句는 가히 이런 移民社會의 斷面을 다룬 典範이 되겠다.

「아버지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치만이의 목을 두 손으로 잘라 쥐고 얼맛 동안 놓지 않았다. 치만이는 낮이 새빨개져서 두 손만 비동벼둥하였다. 작대기는 연방 아버지의 몸에 나뉘었다. 아버지는 기진하였다. 목을 잘라 쥐었던 손이 스스로 풀려났다. 그리고, 으으응 하는 소리를 내면서 쭈욱 늘어졌다. 치만이는 벌써 일어났다. 발을 들어 아버지의 늘어진 가슴과기를 탐으려 하였다. 그 때이다. 「하하하 우리 북동에 시집간다. 옥황상제께 시집간다. 저어걸 봐라. 하하하 가마타구 하하하」 어머니는 경주문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절충절충 뛰었다. 바람이 쾌쾌하고 불고 눈은 싸악하고 날렸다. 피 물은 옷과 흐트러진 머리가 바람에 날리면서 어머니는 눈에 휩쓸려 나자빠졌다. 나의 온 몸은 부들부들 떨리었다. 나는 이를 악문고 옛날 장수들처럼 그들을 단번에 물리치고 싶었다. 나는 옆에 있는 커다란 돌을 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부수고 싶었다. 나는 그들을 둘러고 하였다. 그러나, 밀 뿌리도 낼 수 없었다. 나는 울음의 터져 나왔다. 울면서 달려가서 아버지 가슴과기를 내리 밟으려는 치만이의 궁둥이를 주먹으로 힘껏 쥐어 박았다. 그리고, 궁둥이를 물어 뜯으려고 하였으나, 그의 발길에 차여 나자빠졌다. 「하하하 저것봐라. 북동에 야 시집가느냐? 하하하 이놈들, 너 이놈들 너 이놈 하하하…… 북동에 시집간다. 던지 쩍구 시집간다. 아하하」 어머니는 일어나서 또 경충경충 뛰다가 자빠졌다. 나는 어머니의 미친 달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 이번에는 머리로 치만이의 궁둥이를 밟으려 하였다. (<새벽> 結句)

이것은 격력한 <피>의 修辭學과 狂氣의 天鬼가 대비된 현장이다. 수탈자 박치만을 치치하려는 복수심과는 달리 <나>는 돌 하나도 들 수 없는 어린이다. 아마 崔曙海의 小說에서라면 이런 結句는 착취자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紅焰). 따라서 曙海의 이런 보복적 결말은 하나의 圖式化에 떨어져 文學的 리얼리티를 결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南石의 作品은 이런 장면에서 階級文學의 그것처럼 <죽음>이나 <피>의 복수극으로 끝을 맺지 않고 감정을 절제한다. 그것은 人間에 의한

人權의 擄取란 문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민 지대 현실의 복사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민중을 소재로 한 것으로 궁핍한 가정에 태어나 학대받고 인간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여인의 슬픈 얘기를 쓴 것에 <富儂女>가 있다. 그 結末을 보면,

「시집에서 쫓겨온지 일년만에 부엌너는 병이 들었다. 무슨 병인지 모르되 사흘 동안 헛소리를 지르며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다. 낫겠거니 하고 의사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은 것이었다. 죽을 때, 처음은 어머니를 부르더니, 눈을 감았다. 다시 뜨고는 개똥해야 하고, 이내 장손이 하더니 발탁 뒤집어진 코를 셀룩하더니 눈물을 흘리고 숨을 거두었다. (〈富儂女〉 結句)

이것은 <富儂女>(p. 123~128)의 結句다. 이 作品은 부엌에서 쇠죽을 짓다 가마를 붙들고 낳은 아이라 이름이 富儂女가 된 주인공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바브스런 여인이나, 천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자손이 흔하다고 읍대 부잣집의 아들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아들 개똥쇠가 훑은 한달 앞두고 죽어터리자 부엌너는 시가에서 쫓겨나 친정에서 이렇게 죽어간다. 이 主人公 <부엌너>의 죽음이란 여기 뒤에는 기실 作者의 社會改造란 目的 意識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富儂女가 더듬 장손이에게 처음으로 남성을 느꼈으나 全作品의 文脈은 에르스의인 저문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 한 人間의 운명이 비참해져 가는 면모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편이 그것이다.

이런 점은 20年代 崔曙海文學이 지녔던 프로페타리아적인 것의 지속적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새벽>, <臬首>, <새마을> 등에 나타나는 一人稱 叙述과 작자 자신의 赤裸裸한 在滿移住民 生活을 보여 주고 있는 對現實限은 崔曙海 作品과의 유사성을 보여 주는 다른 일면이라 하겠다.

(3) 農土의 開墾意志와 그 殉教意志

移民地常의 生活史를 다룬 이 作品群에는 본토반이 地主가 경제적인 上部 構造를 형성하고 있는 위에 새로 移住한 小作農이 生産階級이란 매립구조를 지닌다. 安壽吉의 <벼>, <새벽> 등은 移民地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실을 문제 삼는 中篇이다. <벼>는 조선사람이 만주땅에서 농토를 마련하고 새 정착지로 터를 닦던 때의 토착동의 육군과 조선 농민과의 알력을 主題로 다루고 있다. 주인공 박찬수는 조선에서 중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장

배척의 주도자로 실직을 하고, 만주로 와서 매봉둔(鷹峰屯) 조선 개간농민 자처를 가르치려고 학교를 짓다가 중국 육군이 학교에 불을 질음으로써 실패한다.

물론 여기서 착취자는 주로 中國人이고 被害者는 모두 한국인이다. 作品에 간간히 日人이 나오긴 하지만 별로 중요한 性格이 되지 못하는 주변적 인물들이고, 對立하는 類型은 中國人對 朝鮮人(며) 또는 지광관리인 對 지광살이의 대립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文學의 특징은 단순한 단주생활의 주변이라기 보다, 植民地 時代에 있어서의 移民農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人物의 대립관계에서 日人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은 하나의 단순한 외관(Appearance)이고 현실(Reality)은 그렇지 않다. 經濟的인 문제이다 素材를 집중시키는 인상은 批判的인 리얼리즘의 영역을 넘어서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생활의 기틀을 찾아 한국의 농민이 유랑해 간 엑소더스의 당 만주에서 벌이는 흙, 농토로 일어나는 삶의 전환은 이데올로기의 高揚을 위한 合理的인 破壞行爲와는 다르다. 移民이 개간한 눈을 빼앗으려는 중국인과의 갈등을 그린 <며>를 勤勞精神과 합치되는 御用文學으로만 보는데는 역시 무리가 있다.

應召兵이 出征하는 역두에서 일어난 문제를 그린 伊藤永之介의 <燕>을 가장 바람직한 農民小說로 보거나³³⁾, <新時代>를 건설한 새로운 文學으로서 농민文學은 기대하는 발언³⁴⁾은 安壽吉의 小說에 나타나는 農民道의 性格과 전혀 다르다.

그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本國文學이 吳道文學으로 바뀐 시절에 東亞勸業會社와 滿洲人 地主 사이에서 새로운 농토를 개간해야 했던³⁵⁾ 移住民들에게 사실 새로운 착취자는 이 滿洲人 地主들이었다. 그러기에 日人에 대한 문제는 第二次의인 것으로 물러나고, 그의 전 작품은 이 移民地帶의 非人間(主義)的 風土를 비판한다. <며>는 이런 문제가 가장 본격적으로 다뤄진 작품이 되겠는데, <며>에서 이주민들이 고향 응봉리를 떠나, 익수, 치호, 오손이, 민식이가 매봉둔에 이주한날 밤 원주민들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 결과 익수는 배를 맞아 죽는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그들의 既耕地가 침해당할까이고, 또 人間의 本質的으로 갖인 소유욕의 獸性 위에 민족감정이 작용한 것이다. 이주해 오던날 생사고락을 같이 해 온 한 사람의 고향

33) 林和; 文學의 論理(1940), p. 801.

34) 朴○楨; 農民文學의 擁護(東亞日報), 1940. 2월 연재분 참고.

35) 高承濟; 韓國移民史 研究(章文閣, 1973), p. 111.

친구를 잃은 오손이는 그 허망함에 고향에 돌아가자고 주장하나 민식이가 반대하자

「자네같이 벼에 미친 사람은 친구가 맞아 죽는 걸 보구두 가만 앉아 있을 테니 그게 무서워 그러네. 내가 맞아 죽는 댕자 번지 수전인지가 크지 벼 아닌 친구가 중할 턱이 있겠나?……」

라고 공격한다. 이에 격분한 민식이가 오손이의 뺨을 때리자

「이 애가 환장했구나. 만주에 와서 며칠이야. 벌써 오랑캐가 되다니 되놈한테 맞아 죽을까 했더니 이놈 민식이 한테 결단이 나겠네……」

라고 표한한 異民族의 非人間성과 경제적인 생활면에 집착하는 친구를 비방하지만,

「익수의 원수를 갚는 것은 물론 찬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내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고 마는 것이다.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의 목적을 그대로 관철해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이기는 일이 된다. 이제 싸움을 또 일으키고 그런 뒤에 내뺨다면 그들이 원하는대로 되고 만다. 저놈들은 한 놈이 나자빠지더니 그만 질겁해서 뺨손이를 친다고 코웃음을 칠 사람은 누군가? 이런 창피가 어디 있으며 이런 경솔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이를 갈면서 이곳 황무지를 개간해야 한다. 이 벌판이 모두 밭모로 시퍼렇게 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 그리고 돈이라도 한응큼씩 얻어지고 뼈젓이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벼〉 일절)

는 민식의 설교에 순응하고 만다. 그리고, 죽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고향에서 가지고 온 북어를 안주삼아 술을 마시며, 익수의 유언을 생각하며 성공할 때까지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이 결국 옳다고 생각하고 귀향을 포기한다. 이런 개척민의 비극을 염두에 둘 때 원주민 對 鮮人・日人의 등식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日人에게 유희정책을 쓴 滿鮮人의 의식인지 모른다. 이런 고난을 딛고 이주민은 부락에 새로이 이주민 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세대를 생각하여 살아가려 하나, 무장한 중국 육군이 눈을 뻗으려고 나타나 학교에 불을 지른다. 이에 한 젊은이가 선두에 나서서,

「하나두 빠지지 말구 모두 내 뒤를 따르시오. 사생결단이오. 우릴 쫓구 저희가 얼마나 잘 사나 두구 봅시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논에서 벼를 지어먹구 잘 살게

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런 점은 그의 후기 소설, 第三人間型時代를 여는 題材의 면이를 보이는 作品이기도 하다.

Ⅳ. 結 論

이상 논의해 온 사실 중 몇 가지를 導出하면,

① 1940年代 前期의 作品 대부분은 그 쓰여진 文字가 日文이거나, 내용이 皇道共榮文學이란것은 傳統的인 國文學과는 變질된 주제를 고여주고 있다. 이런점에서 上記의 文學作品으로써 文學史를 서술하는 것은 再考되어야 한다. 그것은 作者, 表現文字, 內容 등이 國文學으로 要件지을 수 없는 조건에 있다. 그러나, 在滿 200萬의 移民生活을 문제 삼고 있는 移民文學은 表現文字, 作者, 內容 등으로 보아 이 시기의 本國文學과는 相異할 뿐 아니다 在滿 鮮人の 現場을 검증한 리벌리터를 얻고있다. 따라서 종래 이 시기를 암흑기나 無文學의 時代로 置之하던 점은 새로운 각도에서 研究되어야 한다.

② 南石 安壽吉의 <벼>, <새벽>, <圓覺村> 등은 1940年代 滿洲 移民의 고달픈 生活現場을 自身の 體驗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으로써 體驗小說의 강력한 실특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1940年代의 本國文學이 朝鮮文人報國會를 中心으로 皇道文學을 수립하려던 文學的 現實과는 너무나 相異하다. 따라서 당대 한국문학 作品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의 지향 의지를 형상화 한 작품이다.

③ 安壽吉의 所作이 20年代 崔曙海 作品에 나타나던 體驗의 民族 苦痛과 告發한다는 점에서 國文學의 持續的인 一面에 닿아 있고, 在滿 鮮人の 亡命意志를 形상화 하였다는데 또 다른 民族文學的 意義가 있다.

④ 安壽吉의 農民小說을 두고, 당시 日帝의 水田開墾에 따른 國策原應의 각도에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만주로 찾아가간 사람이 한테기의 땅도 불일 곳이 없어 살 길을 찾아 떠난 小作農이거나, 풀판이, 선업자의 무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만드신 그러한 각도로만 해석을 하는 것은 지나친 의도적 해석이다. 오히려, 지식계급의 출신이 농촌의 무지한 농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뛰어드는 면은 30年代 農村啓蒙小說의 발상으로 이역에서 살아 나려는 民族的 自力意志의 표상화라 볼 수 있다.

(本稿가 시도한 1940年代 國文學의 정리는 사실 資料가 다소 영성한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자료의 보다 폭 넓은 조사가 이뤄지면서 作品研究가 병행됨으로써 이 시대에 대한 새로운 文學史의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本稿와 함께 다뤄려던 朴啓周에 관한 考察은 稿를 달리함)